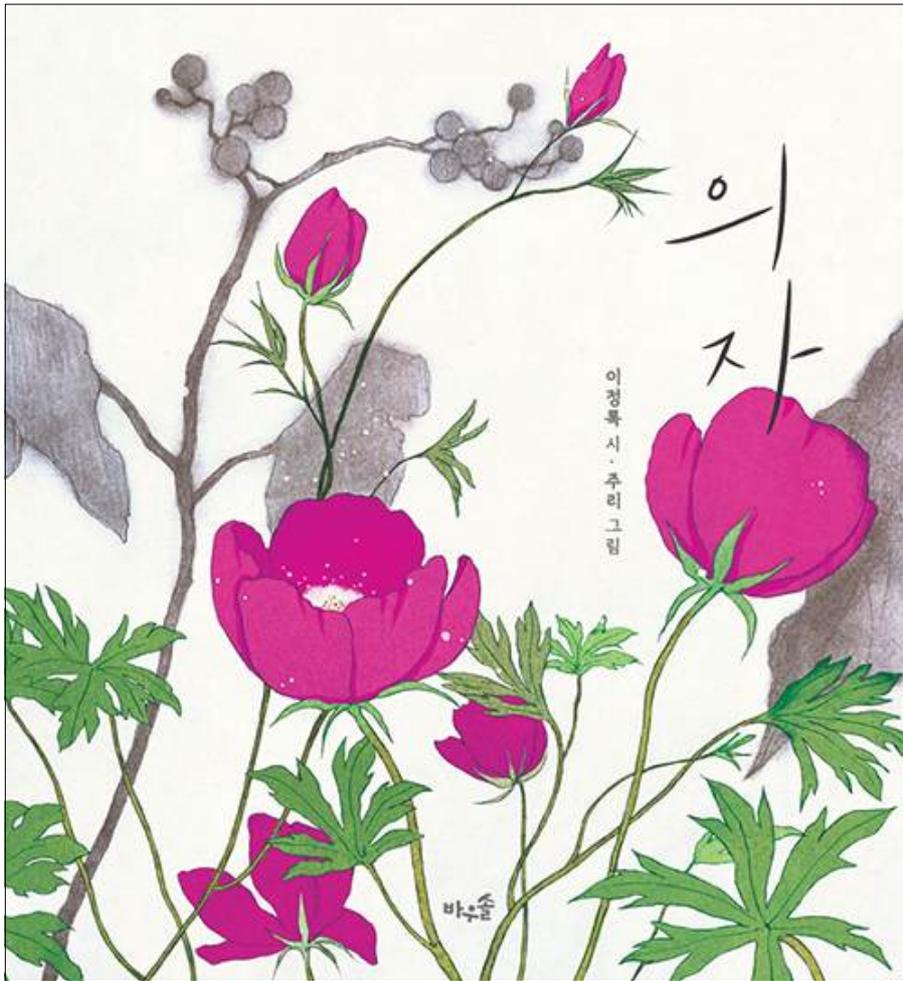


《의자》 독서지도안



힘겨운 인생길, 당신의 '의자'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 누구의 '의자'인가요?

- 작가_ 이정록 시 | 주리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신발조차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지는 퇴근길에는 무언가를 짊어나 앉을 데를 먼저 찾게 됩니다. 발이라도 다치면, 길 곳곳에 놓인 의자와 벤치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위안을 주는지요. 힘겨운 우리네 인생길, 당신의 '의자'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에게 '의자'와 같은 존재일까요. 《의자》는 세상을 의자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말을 빌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의자가 되어 주는 아름다운 삶의 이치를 담담히 전하는 시 그림책입니다. 특유의 말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정록 시인은, 우리 삶을 이어 가는 동력이 '함께'라는 사실을 시로 담백하게 풀어냈습니다. 여기에 장마다 정성을 다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낸 주리 화가의 그림이 더 큰 감동과 울림을 더합니다.

허리가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 어머니는 아들에게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고. 아프니까 자꾸 앉고 싶고, 그러니 전부 의자로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는 의자를 자연에서도 찾습니다. 꽃도 열매도 모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 식구인 참외와 호박에게도 의자를 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어머니 또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자'가 되어 주시지 않았나요? 소박하고 꾸밈없는 어머니의 당부가 가슴 먹먹한 울림과 함께 짙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자연... 내 곁의 소중한 대상을 향한 애뜻한 마음과 고마움이 진하게 배어 나는 작품입니다. 살아가는 데에 그들이 얼마나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 책을 읽고 나면,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소중한 이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3학년 1학기 국어 10. 문학의 향기
3학년 2학기 국어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4. 감상을 나타내요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 4학년 1학기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 4학년 2학기 국어 2.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4. 이야기 속 세상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 5학년 1학기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10. 주인공이 되어
- 6학년 1학기 국어 1. 비유하는 표현
9.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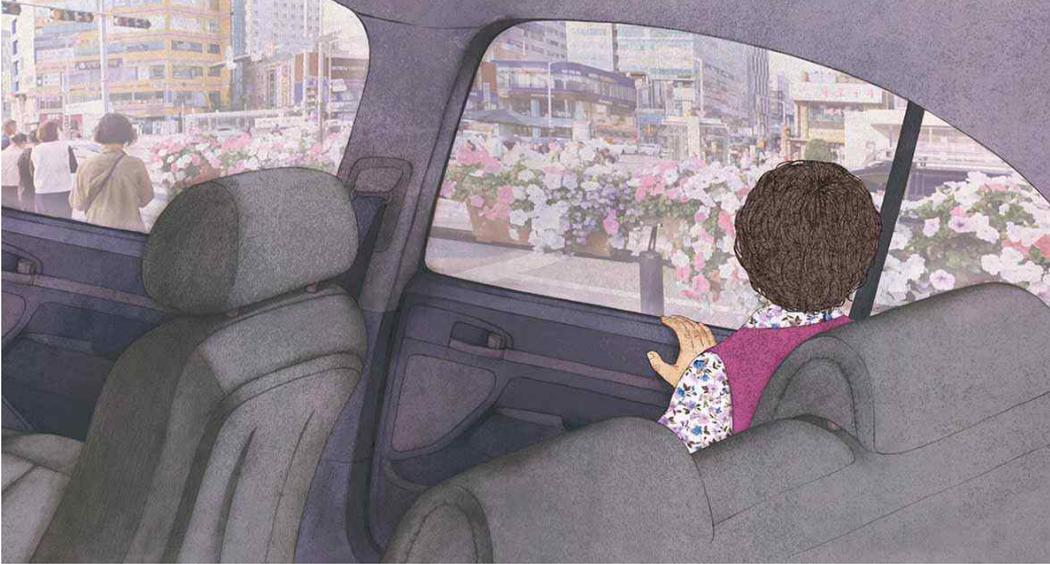
• 지도 요점 :

꽃은 꽃받침을, 열매는 줄기를 의지해 피어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서로 엉키어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지요. 침을 맞을 정도로 허리가 아파도 어머니는 참외와 호박 걱정이 앞섭니다. 그들이 잘 자라도록 얼른 지푸라기와 따리 같은 의자를 내줘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자를 내주고 싶나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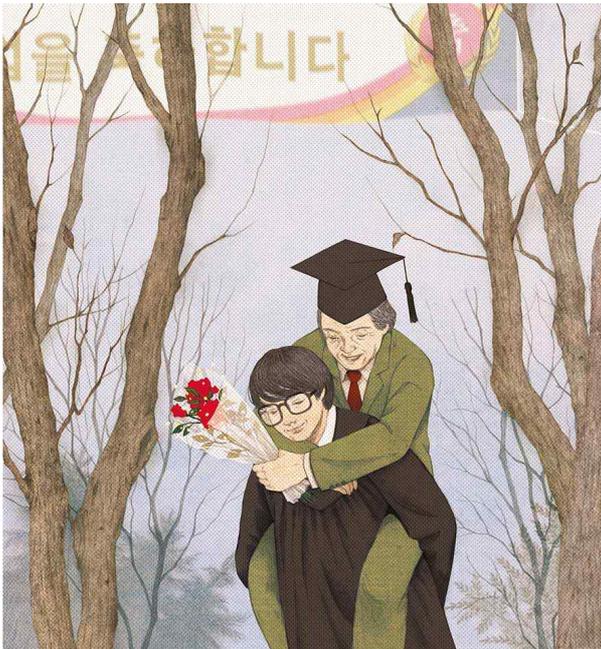
(1)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무엇으로 보인다고 하셨나요?



- ① 꽃
- ② 바람
- ③ 의자
- ④ 별



(2) 아버지한테 좋은 의자는 누구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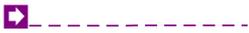
- ① 큰애
- ② 막내
- ③ 둘째
- ④ 셋째



(3) 어머니는 참외와 호박도 무엇이기에 의자를 내줘야 한다고 하셨나요?



- ① 손님
- ② 식구
- ③ 부모님
- ④ 선생님



(4) 어머니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며, 화자에게 당부한 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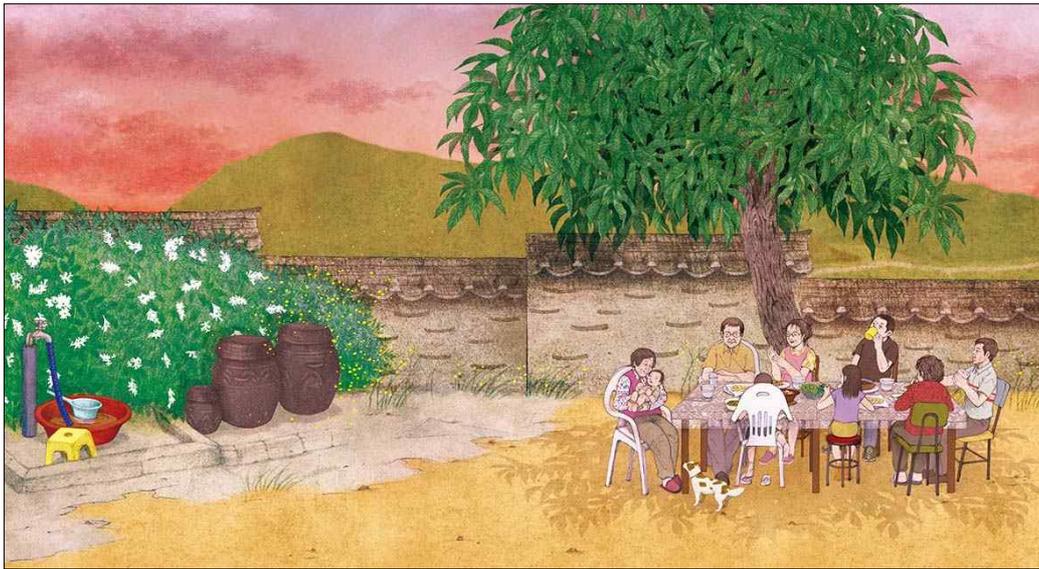


- ① 차 조심하거라
- ② 추운데 옷 단단히 입어라
- ③ 매일 말 조심해라
- ④ 싸우지 말고 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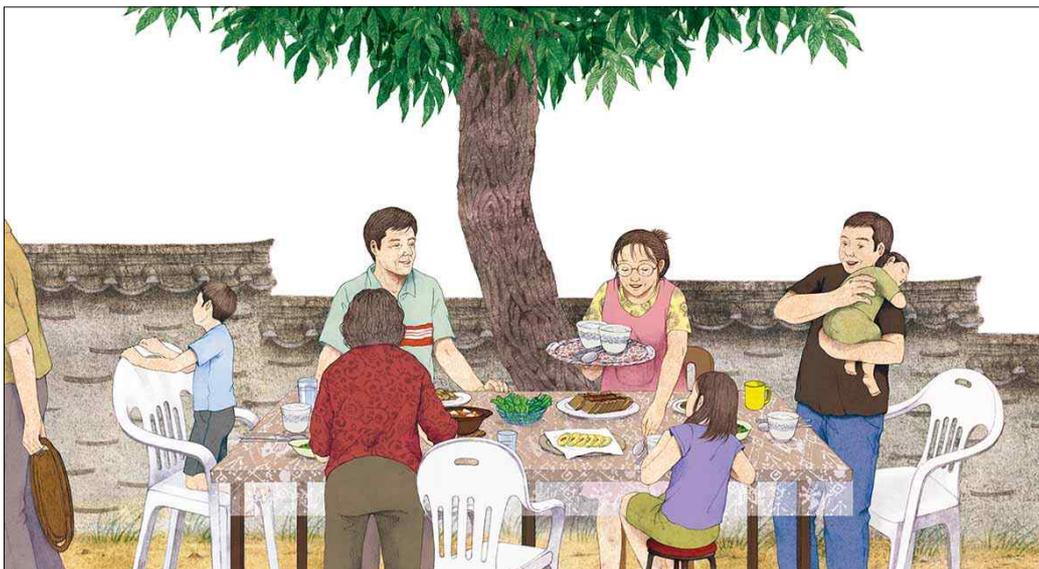


4. 확장활동

(1) 어머니는 아들에게 싸우지 말고 살라고 당부합니다. 펑펑한 세상살이에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형제자매는 서로 의지하며 받쳐 주는 서로의 '의자'니까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좋은 의자였듯이 말이죠. 여러분의 '의자'는 누구인가요?



(2) 어머니 또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자'가 되어 주시지 않았나요? 《의자》를 보고 나서, 가족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3) '의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과 자연에게 서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③ 의자 | (2) ① 큰애 | (3) ② 식구 | (4) ④ 싸우지 말고 살아라

확장활동

- (1) 언제나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한 음식을 내어주는 우리 아빠가 나의 의자예요.
서로 돕고 도는 단짝 친구 한솔이가 나의 의자예요. 등
- (2) 엄마, 아빠 항상 고마워요.
동생아, 싸우지 말자. 등
- (3) 의자처럼 서로 기대며 아픔도 즐거운도 나누어야 해요.
자연도 사람처럼 소중히 대해야 해요. 등